

# 마음 일깨우는 불서 번역 효과만점

불교서적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첫걸음이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끌게 하는 계기는 책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선호하는 서구인들에게는 서적이 적합하다. 때문에 불교번역서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외국인을 위해 번역돼 있는 한국불교서적 및 안내서를 찾아냈다.

이나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 한국불교번역서 현황

한국 불교가 구미 포교를 시작한 1960~1970년대에 번역된 서적들은 선의 역사와 의식에 대한 주제를 담은 논문 위주였다. 1980년대 후 심재용 교수(서울대 철학과)가 보조 지눌과 한국불교에 대해 소개했으며,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브룩대)는 원효의 역할을 다룬 〈불교도의 믿음과 돈오(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1983〉 등 영문저술서를 발간했다.

비교종교학자인 김희성 서강대 명예교수와 前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는 지눌에 대한 연구를 했다. 루이스 랭카스터 명예교수(美 UC버클리대)는 1979년 〈해인사 고려대장경 영문목록(The Korean Buddhist Canon: A Descriptive Catalogue)〉을 발행하고 통일신라·고려·조선전기의 불교를 영문 저술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학문적 영역간행물은 유럽이나 북미에 알려진 적이 없는 한국 선에 대해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이하 간행위)가 원효, 의상, 지눌, 휴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 문집 등 90여 종을 선별해 한글역 13권을 2011년 발행했으며 이에 대한 영역본을 오는 6월 말~7월 초 완역해 발간할 계획이다. 간행위 권기찬 연구원은 “한국불교와 사상을 시리즈로 번역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발간이 되면 전세계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와 한국학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불교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부터다. 미국과 유럽에 사찰을 짓고 송광사 국제선원을 개원해 해외포교에 나선 뒤 구산 스님(1909~1983)이 1976년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문을 모아 〈구산(Nine Mountains)〉을 출간해 해외에 널리 소개했다.

해외포교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송산 스님(1927~2004)의 많은 법문집도 영역본으로 발간됐다. 〈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오직 모를 뿐 (Only Don't Know)〉

등 10 여권이 해당된다.

조계종 중흥을 지냈던 성철 스님과 관련된 영문 책자들도 있다. 〈가야산의 메아리(Echoes from Mt. Kaya)〉를 비롯해 브라이언 배리가 번역한 〈이웃(Opening the eye)〉며,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번역한 〈백일법문(Sermon of one hundred days)〉 등이 있다.

수필·산문집으로 불자와 일반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법정 스님의 책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깨달음의 거울〉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등 10여 권의 책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출간됐다.

쉬운 언어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륜 스님의 〈죽문죽설〉도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 소개됐다.

죽문죽설 강연회 내용을 가려 뽑아 영어로 옮긴 〈참 행복(True Happiness)〉은 행복과 반향을 얻었다. 스님의 두 번째 영어 법문집 〈참 자유(True Freedom)〉는 ‘행복’에 이어 ‘자유’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대행 스님의 법어집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고 있다.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No River To Cross)〉를 비롯해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내 마음은 금부처) 〈생활 속의 참선수행(시리즈)〉 등 10여 권의 도서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돼 각각의 유명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전세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조계종 중흥 진제 스님이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영문 법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를 출간해 한국의 간화선 수행법을 지구촌에 전파하고 있다. 불서번역포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 간행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불광출판사와 함께 〈Korean Buddhism〉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으로 발간해 회통불교, 간화선 전통 등 한국불교 수행과 의식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최근 템플스테이와 연등축제 등 한국



외국인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계기는 불서를 통해서다. 2010 독일 국제도서전 포럼에 참가해 대행 스님의 책을 소개하는 청교 스님

논리·이성적인 서구인에게 번역불서를 통한 포교 적합 학술서·법어·수필·간행물 등 외국인 눈높이 맞추기 시도

불교의 역동성을 알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하고 한국사찰 안내, 사찰예절 등 한국불교의 특징들을 실었다. 또한 30년간 읽혀진 불교계 베스트셀러인 〈선방일기(Diary of a Korean Zen Monk)〉를 영어·중국어로 번역해 치열하게 수행하는 선승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 밖에 중단협은 최근 〈마음으로 가는 6가지 길(6 Ways to the Heart)〉를 영문으로 펴내 한국불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는지 소개하고, 간화선 열불 주력 간경 사경 절 등 6가지 수행의 역사와 방법, 경전에서 찾은 근거 등을 60여 컷의 사진과 안내하고 있다.

## 간화선 주제 접근 어려워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영문 계간지 ‘로터스 랜턴(Lotus Lantern)’을 발행해 조계종 해외사찰과 문화원, 박물관 및 국내 외국인안내소 등에 무료배포하고 있다. 책에서는 선어록, 수행 관련 질의응답 코너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계간 ‘불교와 문화(Buddhism and Culture)’를 발행해 미주·유럽지역 및 전 세계에 무료로 보급해 한국 불교 사상과 불교문화의 아름다운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불교문화 소개서인 〈한국불교의 빛깔(The colors of Korean Buddhism)〉을 발간해 한국불교의 종교, 문화, 예술적 가치를 30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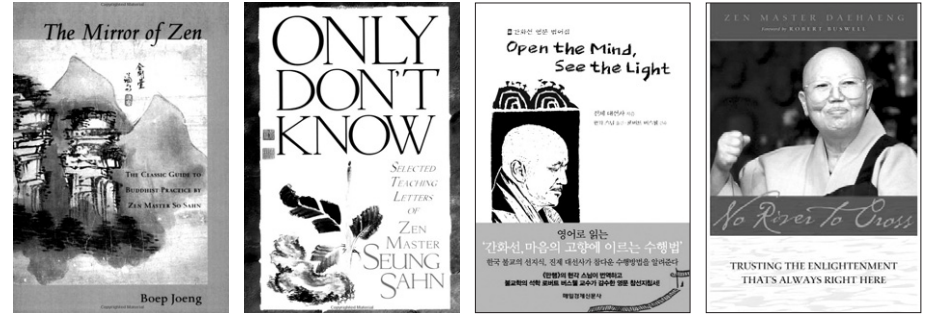
송산·법정·대행·법륜 스님 책 지구촌 곳곳에 퍼져 달라이라마·틱낫한 같이 쉬운언어로 책 만들어야

지 아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책은 ‘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여한 각종 대표자와 관계자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쉬운 내용을 골라야

유럽과 미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다. 2008년 미국불교 협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불교 조직과 가구는 2000여 개, 오계를 받은 신도수는 약 300만 명이다. 미국인의 숫자가 3억 명임을 감안하면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불과 10~20년 내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수치다. 물론 이런 통계의 뒷면에는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등 스타의 반열에 오른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두 스님의 외국어 실력도 한몫했지만 외국인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계기는 이들의 책을 통해서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미국인 불자들에게 어떤 계기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고 물었을 때 불교 관련 서적을 읽고 나서 불교를 알게 됐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세계적 성공이 부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들의 영어 저서에 기인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간화선’



한국의 고승대덕들의 법문과 저술을 번역한 책들은 해외포교에 큰 도움이 된다. 왼쪽부터 법정 스님의 〈깨달음의 거울〉, 송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진제 스님의 〈Open The Mind, See the Light〉, 대행 스님의 〈건널 강이 어디 있느냐〉이다. 아래의 표는 아마존닷컴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번역 법문집과 학술서 목록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60여 권의 번역불서가 소개돼있다.

저자	도서명	비고
정보 스님	조당침을 통한 한국선불교 연구(A study of Korean Zen Buddhism approached through the Chodangjip)	
구산 스님	구산( Nine mountains) / 한국선의 길(The Way of Korean Zen)-마틴베셀러 역	
김재현	한국선승들의 선시(Meditative Poems by Korean Monks)	
대행 스님	자유를 향한 내면의 길(The Inner Path of Freedom) 죽어 나를 보라(To Discover True Self I Must Die) 시리즈 1~6 건널강이 어디 있느냐(No River to Cross)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내 마음은 금부처(My Heart is a Golden Buddha) 깨어나 웃어라(Wake up and Laugh) / 일체는 마음밖에 달랠다(Si Te Lo ProPonos No Hay Impossibles) 살은 고기 아니다(人生不是魚)	영서 영서(영) 영서(서) 영서(서) 영서(서)
로버트 버스웰	선승 체험(The Zen Monastic Experience) / 한국불교구미구미와 여성불자(Korean Buddhist Nuns and Laywomen) 진제연구(The Collected Works of Chinul) 동아시아한국불교조영(Korean Buddhism in East Asian Perspectives) 근강삼매경론(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루이스 랭카스터	한국불교개론(Introduction of Buddhism to Korea) / 초기조선불교(Buddhism in the Early Choson) / 고려불교(Buddhism in Korea)	
미르틴 베셀러	한국 선불교의 여성(Women in Korean Zen: Lives and Practices)	
만공 스님	만공스님 법문(The Teachings of Zen Master Man Gong)	
무성 스님	천 봉우리(Thousand Peaks: Korean Zen: Tradition and Teachers)	
반노자	원효의 선정(Selected Writings of Han Yongun)	
박성배 교수	불교의 신앙과 돈오(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현대한국불교의 창시자들(Makers of Modern Korean Buddhism)	
박찬영 교수	불교와 포스트모더니티(Buddhism and Postmodernity) / 메를루팡티와 불교(Merleau-Ponty and Buddhism)	
법정 스님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May All Beings Be Happy) / 깨달음의 거울(The Mirror of Zen) 물 소리 바람 소리(The Sound of Water, the Sound of Wind) 산에는 꽃이 피네(山中花開) / 바리교 띠나기(すべてを捨てて去る) / 하고 할기(행)일본어	중,일
정원 스님	불교정화운동(Purification Buddhist Movement) / 불교와 평화(Buddhism And Peace: Theory And Practice)	
성철 스님	가야산의 메아리(Echoes from Mt. Kaya) / 이렇고 평화(Opening the eye) 백일법문(Sermon of one hundred days)	
수불 스님	종교의 목적과 이유(The Purpose and Reason of Religion)	
송산 스님	세계일체(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 / 10개의 문(Ten Gates) 부처님께 사를 떨기(Dropping Ashes on the Buddha) / 오직 모를 뿐(Only I-Know Mind) 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심재용 교수	한국불교 전통과 변화(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영서
우광 스님	Open Mouth Already a Mistake / Elegant Failure: A Guide to Zen Koans?	
임보 스님	한국불자들의 생활 속 실천(Everyday Korean Buddhist Practices)	
황스 불리	원효의 깨달음의 경전(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 원효의 마음철학(Wonhyo's Philosophy of Mind)	
청화 스님	가장 행복한 공부(The Most Joyful Study) / 마음의 고향(The Native Home of Our Mind)	

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려워 이에 대한 번역서를 만들어도 외국인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광출판사 마케팅 담당자는 “간화선이 라는 주제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어렵고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 법정·법륜 스님 등의 책이 국내 일반대중에게도 인기가 있듯이 대중적이면서도 수필과 같은 쉬운 문체의 책을 번역해 출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륜 스님의 〈참 행복(True Happiness)〉 (죽문죽설 시리즈) 가운데 제목·가죽문제 등 미국 상황에 맞는 주제들을 뽑아 미국인을 비롯한 서양인의 정서를 겨냥해 내놓은 책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불교만이 최고’ 라는 일반적인 홍보 태도를 버리고 외국인들이 자기 식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영어연구회 홍연주 팀장은 “처음 외

국인들이 책을 통해 불교를 접간할 때 쉬운 언어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간화선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면 서 간화선위주의 책을 소개하거나 어려운 한문투의 번역서를 소개한다면 그들은 거꾸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한국불교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해 번역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불서를 통한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영어번역전문가 확보가 필수이며 전담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등 환경적요소가 마련돼야 한다. 홍연주 팀장은 “번역가들이 영어번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 재정지원이 마련되면 더 많은 불서와 올바른 번역서가 나올 것”이라며 “좋은 예로는 한미음역문화원이 있다. 이곳은 대영 스님의 법문번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소속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영역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포교당

## 전북불교회관 · 보현사

### 화엄불교대학 · 부설 룸비니 어린이집

주지 : 일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5  
☎ 063)277-3497 Fax 063)275-0108 http://www.jbbulgyo.org/

**법회안내**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신도신행연합법회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청년회 법회 - 매월 2·4주 수요일 오후 7시
- 화엄불교대학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학림원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불련 연합법회 - 매월 1·3주 금요일 오후 7시
- 운전자 불자 연합회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참정단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기 2556년

# 봄 부처님 오신 날

세상 만물이 기쁘고 평화로운 날

우리 마음의 연등을 밝혀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명원 김의정

대한불교 중앙신도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건지동 13)  
Tel. 02-733-7277 Fax. 02-733-7278 www.LBA.or.kr